

# ‘답보’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물꼬’

### 감사원·기재부 지속 협의해 성과 이끌어 내 “건립 이전 속도 낼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매물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이 감사원 사전 컨설팅 결과에 따라 경찰서 신축부지 이전과 관련된 매물 비용인 사전 설계비용의 지급이 가능해져 그동안 큰 산으로 여겨졌던 제도적 난관이 해소됐다. 군은 지난 6월 경찰서 이전과 관련된 국유지 교환 검토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현지실사 등을 실시했지만, 기존 설계에 대한 비용 지급과

미 매입한 토지의 수용 문제 등으로 경찰서와의 협의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군은 타결책을 찾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지속 방문하고 지난 9월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하는 국가-지자체 국유재산활용협의회에서 순철 부군수가 참석해 해당 안전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협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매물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감사원 사전감사 컨설팅을 신청했으며, 감사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성과를 이끌어냈다. 감사원의 컨설팅에 따라 국유 재산과 지자체의 상생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미 매입한 1필지를 제외한 강진군이 확보한 부지와 현 경찰서의 부지를 맞교환하고, 경찰서 건립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군 관계자는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지목변경과 같은 사전 절차를 준비 중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감정평가 및 교환협약 등 부지교환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경찰서 신청사 건립 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 청정바다서 자라 품질 좋은 ‘완도 물김’ 위판 한창

청정바다 완도에서 자란 물김 출하가 한창이다. 완도군에서는 지난 5일 금일수협 사동리 위판장에서 김 양식 어업인, 금일수협 관계자, 중매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김 초매식을 가졌다. 이날 물김 평균 경매 단가는 1마대(120kg)당 166,000원에 거래됐다.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4,394톤(77억 원)의 물김이 위판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생산량은 33%, 생산액은 55%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총 75,600여 톤(822억 원)의 물김 위판 실적을 기록했다. 물김 채취는 내년 4월까지 하며, 해황 여건이 좋아 품질이 좋은 것은 물론 생산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 선정

진도군이 감염병 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군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열린 ‘감염병관리 학술대회(콘퍼런스)’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조사 감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만 12세 이하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접종률 ▲감염병 분야 지역협력 사항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예방 접종관장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폐렴구균,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접종을 실시해 국가예방 접종률을 높여 주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도모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올바른 손씻기 교육과 방역소독, 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했다. 진도군 보건소는 예방접종이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공중보건 중재수단임을 인식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환자 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안전한 진도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해남 땅끝마을 달마산 도솔암 “하늘끝 암자에 겨울이 깃드네”

해남 땅끝마을 달마산의 하늘끝 신비로운 암자 ‘도솔암’에도 겨울이 내려앉고 있다. 한반도를 달려온 마지막 단풍이 기암괴석 솟은 자리마다 잠시 머무는 사이 탁트인 시야 넘어 청명한 하늘은 멀리 다도해에 흩어진 보석같은 섬들의 소식을 전해준다. 좁은 산길을 따라 마지막에 다다른 도솔암, 바위틈 석축에 매달린 작고 신비로운 암자도 겨울 채비를 마쳤다. 지붕을 지탱하던 기둥 하나가 사야 법당이 기울고, 문짝도 맞지 않아 위태로운 법당을 지난 10~11월 한달여 간에 걸쳐 해체 후 중건했다. 도솔암은 통일신라 말 의상대사가 창건한 암자로 명량대첩 이후 왜구에 의해 불

타 소멸되었다가 2002년 월정사의 범조스님이 3일 동안 현몽을 꾸고 재건했다. 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흥사의 말사이다.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달마산에 위치한 도솔암은 기암괴석이 이어진 바위 병풍의 꼭대기에 절묘하게 세워져 있어 하늘 끝 신비로운 암자로 불린다. 땅끝 일대와 다도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경관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도솔암 가는 길은 달마산 둘레길로 조성된 한국의 산티아고, 달마고도를 찾는 걷기 여행객들에게도 가장 인기있는 코스이다. 겨울이 찾아온 달마산, 신비로운 암자 도솔암의 고요하면서도 경이로운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2024년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질 높인다”

장흥군은 2024년도 사회복지 서비스 질 및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장흥종합사회복지관(관장 양은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종합사회복지관은 2023년 3개 기능 10개 사업 분야에서 이동빨래방 운영, 결식노인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실평가에서 2019 ~ 2023년까지 2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시설 운영 및 관리에도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2024년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경로식당 무

## 2023년 53개 사업, 12,000여 명에 서비스 연계 및 제공 2024년 경로식당 무료급식, 문해교육 등 18개 사업 추진

도시락 배달 등 53개 사업을 추진했다. 장흥군은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와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관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외부 공모사업에도 응모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24개 사업에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료급식, 문해교육 등 28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외부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